
창덕궁

한국어

창덕궁

- 1405 (태종 5) 창덕궁 창건
- 1406 (태종 6) 창덕궁 동북쪽에 후원 조성
- 1463 (세조 9) 세조, 후원을 확대 조성함

- 1592 (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됨

- 1610 (광해 2) 선정전, 회정당, 대조전 등 주요전각들 재건
- 1623 (광해 15) 인조반정 당시 실화로 주요 전각들이 소실됨
- 1636 (인조 14) 옥류천 정원 조성
- 1647 (인조 25) 주요 부분 재건 공사

- 1704 (숙종 30) 서원지역에 대보단 건설
- 1776 (정조 8) 규장각과 주합루 조성

- 1917 대조전에 큰 화재가 발생해 대부분의 내전 소실
- 1921 후원에 신 선원전 건립
- 1991 각종 복원공사가 시작됨
- 1997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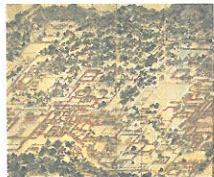
자연과 조화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건립된 조선왕조의 왕궁이다. 처음에는 법궁(法宮)인 경복궁에 이어 이궁(離宮)으로 창건했지만, 이후 임금들이 주로 창덕궁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 때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탄 후에 경복궁은 그 터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재건되지 않고 1610년(광해 2)에 창덕궁이 재건된다. 그 후 창덕궁은 경복궁이 재건될 때까지 270여 년 동안 법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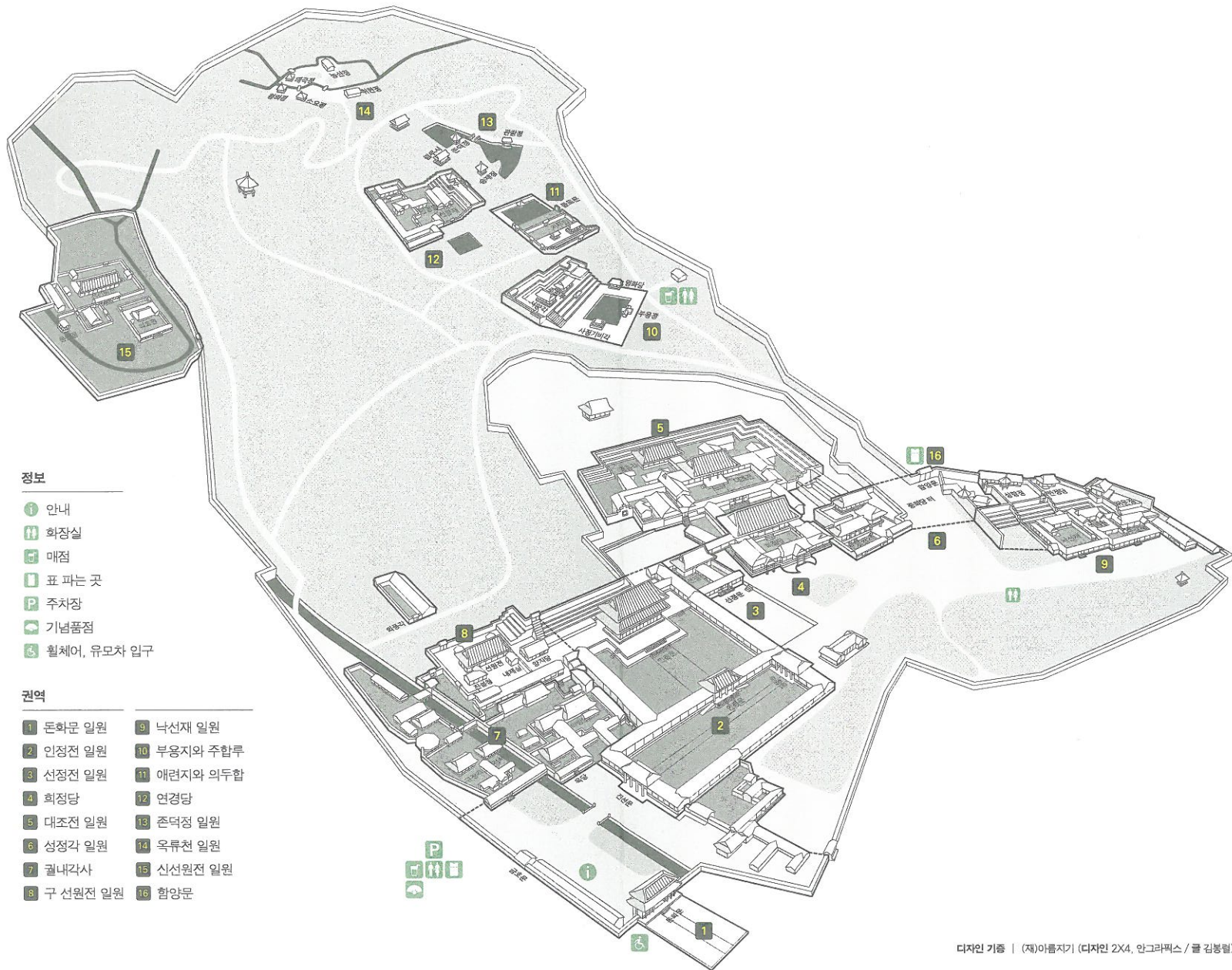
창덕궁은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가의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창덕궁의 공간 구성은 경희궁이나 경운궁 등 다른 궁궐의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궁의 동쪽에 세워진 창경궁(昌慶宮)과 경계 없이 사용하였으며, 두 궁궐을 '동궐'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또 남쪽에는 국가의 사당인 종묘(宗廟)가, 북쪽에는 왕실의 정원인 후원(後苑)이 붙어 있어서 조선 왕조 최대의 공간을 형성했다.

그러나 왕조의 상징이었던 궁궐은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소실과 재건을 거치면서 많은 변형을 가져왔고 1991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1997년 12월 6일에 유네스코(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이 되었다.

창덕궁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선 개국 후 규모가 큰 경복궁이 창건되었는데도 태종이 새로운 궁궐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태종은 경복궁의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정적 정도전과 이복동생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으로서는 그 피의 현장인 경복궁에 기거하는 것이 꺼려졌을 것이다. 창덕궁이 세워짐으로써 조선 왕조의 궁궐 체제는 법궁(法宮)-이궁(離宮)의 양궐 체제가 된다.



동궐도(東闕圖) 국보 제249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체 모습을 그린 가로 576cm, 세로 273cm의 큰 그림. 열여섯 폭의 비단에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아름답게 채색한 이 그림은 1826년에서 1830년 사이에 궁중 화가인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뿐 아니라 다리와 담장, 괴석까지 실제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각 건물의 이름을 기재하여 궁궐 연구와 복원작업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동궐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을 기록한 그림으로 예전의 영화를 재현하고 있다.



정보

- i 안내
- ff 회장실
- T 매표
- P 표 파는 곳
- P 주차장
- 🛍️ 기념품점
- ♿ 휠체어, 유모차 입구

권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돈화문 일원 2 인정전 일원 3 선정전 일원 4 회정당 5 대조전 일원 6 성정각 일원 7 권내각사 8 구 선원전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낙선재 일원 10 부응지와 주합루 11 애련지와 의두합 12 연경당 13 존덕정 일원 14 옥류천 일원 15 신선원전 일원 16 함양문 |
|---|--|

1 돈화문 일원

敦化門

규모와 품위를 함께 갖춘, 창덕궁의 정문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은 1412년(태종 12)에 건립되었다. 창건 당시 창덕궁 앞에는 종묘가 자리 잡고 있어 궁의 진입로를 궁궐의 서쪽에 세웠다. 2층 누각형 목조건물로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앞에 넓은 월대를 두어 궁궐 정문의 위엄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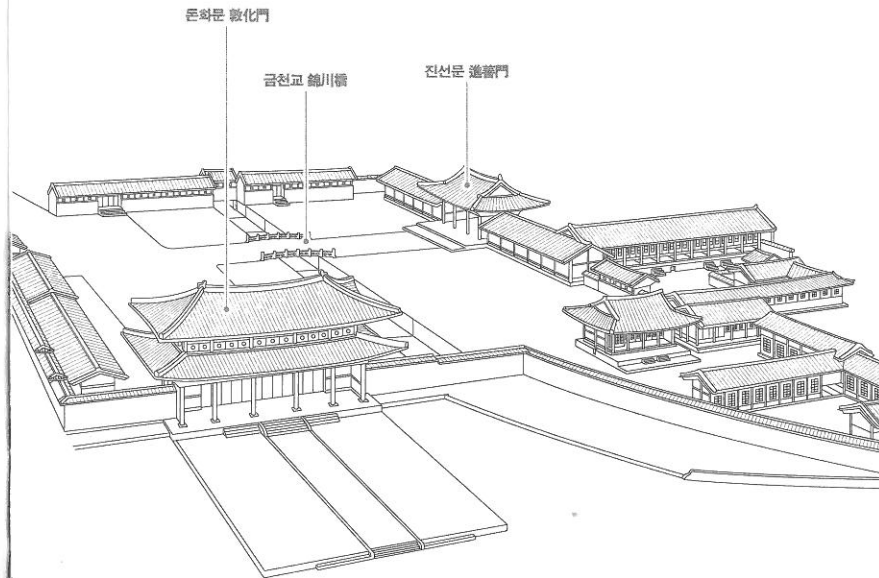
돈화문은 왕의 행차와 같은 의례가 있을 때 출입문으로 사용했고, 신하들은 서쪽의 금호문으로 드나들었다. 원래 돈화문 2층 누각에는 종과 북을 매달아 통행 금지 시간에는 종을 울리고 해제 시간에는 북을 쳤다고 한다. 돈화문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이듬해인 1609년에 재건되었으며, 보물 제383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천교

예로부터 궁궐을 조성할 때에는 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당수를 건너게 하였다. 이 물은 궁궐의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경계 역할을 하므로 금천(禁川)이라고 하며, 창덕궁의 금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돈화문 동쪽 궐 밖으로 빠져 나간다. 1411년(태종 11) 금천에 다리를 놓았는데, 비단처럼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개울에 놓인 다리라 하여 '금천교(錦川橋)'라 불렀고, 현재 궁궐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서 2012년 보물 제 1762호로 지정되었다.

대민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돈화문 영조는 재위 4년째인 1728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이 진압된 후, 돈화문 2층 돈화문루에서 현리례를 받았다. 현리례(獻禮禮)는 싸움에 나간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왕 앞에 바치는 의식을 말한다. 이때 영조는 서울에 사는 노인들을 돈화문 앞에 초청하여 난의 원인이 담쟁이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에 가담한 백성들에겐 중죄를 주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돈화문 앞 광장은 이처럼 대민광장이기도 했다.



아무나 칠 수 없었던 신문고 금천교를 지나면 진선문이 있다. 이 문에는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경국대전>에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자는 소장을 내되, 그래도 억울하다면 신문고를 두드려라'라고 신문고 치는 절차를 밝혀 놓았다. 일반 백성들이 이러한 절차를 다 밟기도 어려웠거니와,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돈화문을 통과하여 신문고를 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드리기 힘든 신문고는 포기하고 왕의 행차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많아져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2 인정전 일원

仁政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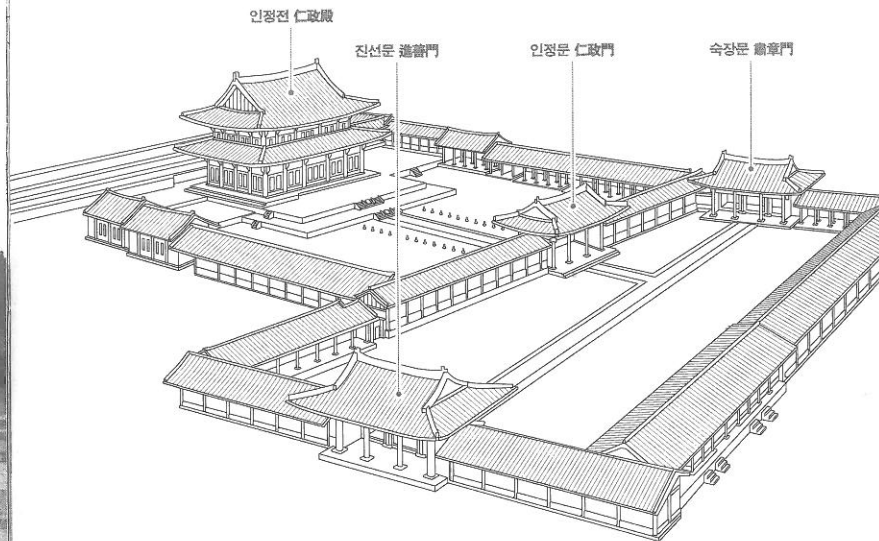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곳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正殿)으로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앞쪽으로 의식을 치르는 마당인 조정(朝廷)이 펼쳐져 있고, 뒤편에는 뒷산인 응봉으로 이어져 있다.

2단의 월대 위에 웅장한 중층 전각으로 세워져 당당해 보이는데, 월대의 높이가 낮고 난간도 달지 않아 경복궁의 근정전에 비하면 소박한 모습이다. 인정전은 겉보기에는 2층이지만 실제로는 통층 건물로 화려하고 높은 천장을 볼 수 있다. 바닥에는 원래 흙을 구워 만든 전들이 깔려 있었으나, 지금은 마루로 되어있다. 전 등, 커튼, 유리 창문 등과 함께 1908년에 서양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인정문 밖 의행각(外行閣)에는 호위청과 상서원 등 여러 관청들을 두었다.

1405년(태종 5)에 창덕궁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으나 1418년(태종 18) 박자청에 의해 다시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0년(광해 2)에 재건, 1803년(순조 3)에 소실된 것을 이듬해에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의행각 일원은 1991년 이후에 복원했다. 인정전은 국보 제2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창덕궁 공사로 내시에서 1푼 벼슬에까지 오른 박자청 인정전 외행각 마당은 서쪽 진선문 쪽이 넓고 동쪽 숙장문 쪽이 좁은 사다리꼴이다. 당시 상왕이었던 태종은 이 마당이 반듯하지 못하다 하여 박자청을 하옥시킨 일도 있었다. 그러나 숙장문 바로 뒤에 산맥이 있어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사다리꼴로 만든 것이었다. 고려 말 내시 출신인 박자청은 조선 개국 후에 궁궐 문을 굳게 지킨 일로 태조의 눈에 들어 왕을 경호하다가 창덕궁의 건축 감독을 맡게 되었다. 창덕궁뿐 아니라 제릉, 건원릉, 경복궁 수리, 첨계전 준설, 경희루, 무악이궁, 현릉 등 많은 공사를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이후 공조판서, 우군도총제부판사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3 선정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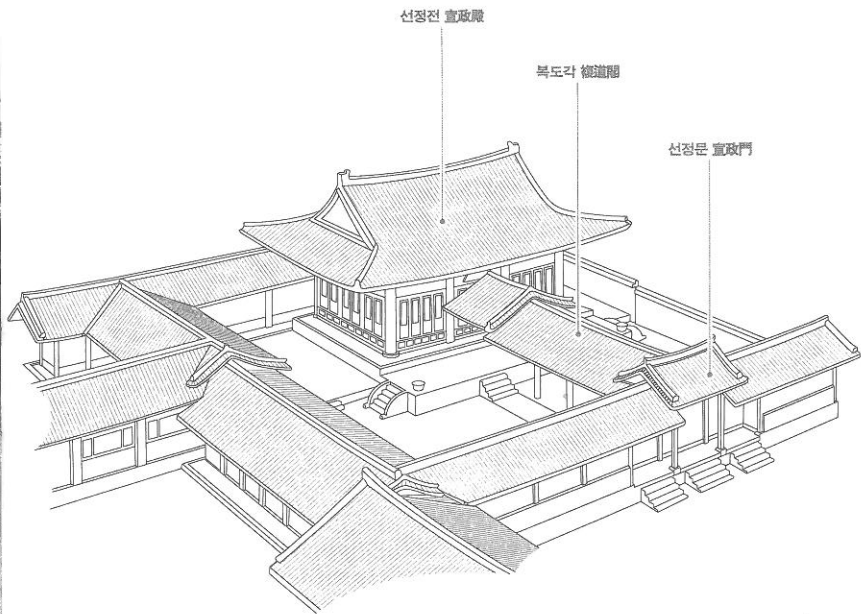
宣政殿

임금의 집무실로 쓰인 곳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함께 일상 업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便殿)으로, 지형에 맞추어 정전인 인정전 동쪽에 세워졌다. 아침의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정 세미나인 경연 등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매일 열렸다. 창건 당시에는 조계청이라 불렀는데, 1461년(세조 7)에 '정치는 베풀어야 한다'는 뜻의 선정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등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647년(인조 25)에 인왕산 기슭에 있던 인경궁을 헐어 그 재목으로 재건하였다. 주위를 둘러싼 행각들을 비서실, 부속실로 이용했으나 전체적으로 비좁았다. 현재 궁궐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기와 건물이다.

뒤편의 회정당으로 편전 기능이 옮겨 가면서 순조 이후에는 이곳을 혼전(魂殿, 죽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보물 제 814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로잔치를 열기도 했던 선정전 선정전은 원래 왕의 공간이지만 왕비가 사용한 일도 있다. 성종 때 공혜왕후 한씨가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을 권장하기 위해 양로연을 이곳에서 베풀었다. 양로연은 80세 이상의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열렸다.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 윤씨는 이곳에서 친히 누에치는 시범을 보였으며, 종종 때는 내외명부의 하례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왕비가 편전인 선정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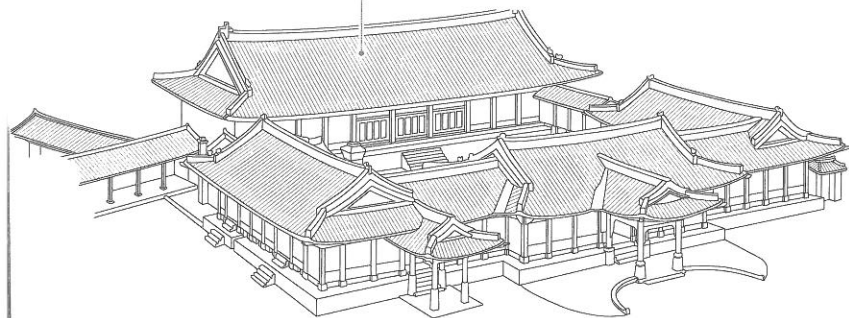
4 회정당

熙政堂

침전에서 편전으로 바뀌어 사용된 곳

인정전이 창덕궁의 상징적인 으뜸 전각이라면 회정당은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실질적인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름은 승문당이었으나 1496년(연산 2)에 회정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의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국장을 위한 혼전으로 쓰이면서, 침전이었던 회정당이 편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의 회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에 있던 강녕전을 옮겨 지은 것이다. <동궐도>에 그려진 원래의 회정당은 여러 개의 돌기둥 위에 세운 아담한 집이었고 마당에 연못도 있었다. 지금의 회정당은 이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원래의 강녕전과도 다르다. 재건된 회정당 내부는 쪽마루와 카펫, 유리 창문, 천장에 샹들리에 등을 설치하여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보물 제815호로 지정되어 있다.

회정당 熙政堂



못 다 핀 개혁정치의 꿈, 효명세자(孝明世子) 회정당은 순조의 아들이며 현종의 아버지인 효명세자가 승하한 곳이기도 하다. 외모와 총명함은 물론이고 책을 좋아하는 모습까지 할아버지 정조를 빼닮았다고 전해지는 효명세자. 순조의 명으로 19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한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세력과 맞서 침신한 인재를 등용하고 개혁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아버지의 희망, 할아버지의 이상, 그리고 조선 백성들의 염원을 채우지 못한 채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으니, 정사를 들본 지 겨우 3년 3개월 만이었다. 효명세자는 후원에 작은 공부방인 의두함을 짓고 이곳에서 독서를 즐겼다.

5 대조전 일원

大造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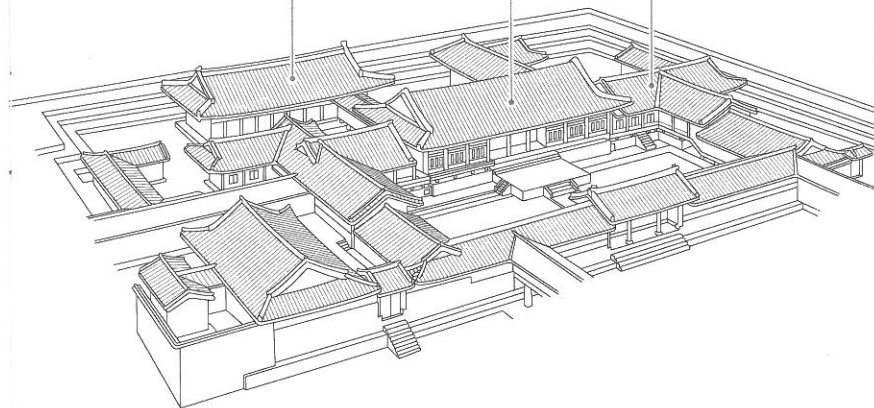
비극적 역사가 담겨 있는 침전

대조전은 창덕궁의 정식 침전(寢殿)으로 왕비의 생활공간이다. 원래는 대조전 주변을 수많은 부속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흥복헌(興福軒)은 1910년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 경술국치가 결정되었던 비극의 현장이다. 1917년 불타 없어진 터에 1920년에 경복궁의 침전인 교태전을 옮겨 지어 현재의 대조전이 되었다. 이견하면서 창덕궁의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했는데, 대조전을 중심으로 양옆 날개채와 뒤편의 경훈각 등이 내부에서 서로 통하도록 복도와 행각으로 연결했다. 원래 궁궐의 복합적인 구성을 잘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회정당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서양식으로 개조하였으며, 왕실생활의 마지막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보물 제816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훈각 景勳閣

대조전 大造殿

흥복헌 興福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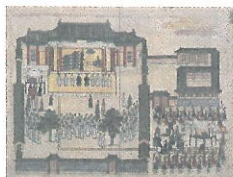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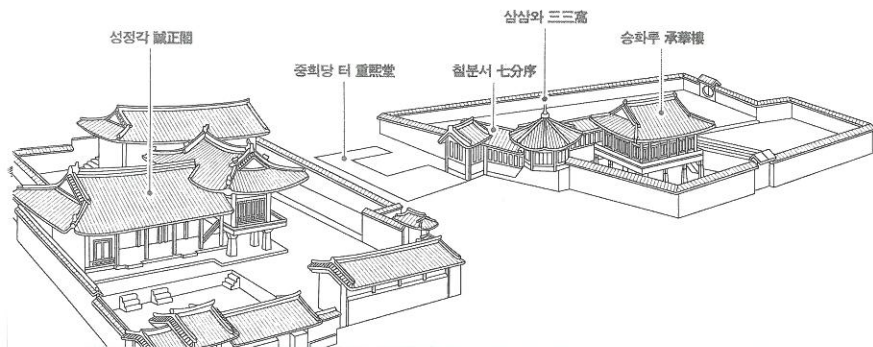
6 성정각 일원

誠正閣

세자의 일상이 숨쉬던 동궁

성정각은 세자의 교육장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내의원으로 쓰기도 했다. 성정각은 단층이지만 동쪽에 직각으로 꺾인 2층의 누(樓)가 붙어 있어 독특한 모습이다. 누각에는 희우루(喜雨樓), 보춘정(報春亭)이라는 편액들이 걸려 있다. 성정각 뒤편에 있는 관물헌(觀物軒)은 왕이 자주 머물면서 독서와 접견을 했던 곳으로, 현재는 '집희(緝熙)'라는 현판이 남아 있다.

현재 성정각과 낙선재 사이, 후원으로 넘어가는 넓은 길은, 원래 높은 월대 위에 당당하게 자리한 중희당(重熙堂)이 있었던 곳으로, 이 일대가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東宮)이었다. 동궁일대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중희당은 1891년(고종28)에 없어졌고, 중희당과 연결된 칠분서(七分序), 6각 누각인 삼삼와(三三窩)와 승화루(承華樓) 등이 남아 있다. 이들은 서로 복도로 연결하여 서고와 도서실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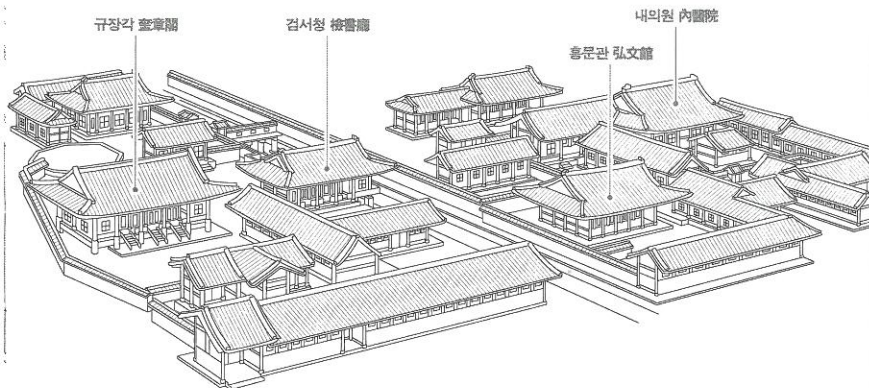
세자의 생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여서 왕자는 네 살 정도까지 자란 후에 세자가 될 수 있었다. 10여 세 전후하여 성인이 되는 관례를 치르고 이어서 혼례를 치른다. 세자의 교육은 시강원이라는 관청에서 담당했다. 하루 세 차례 교육과 독서, 틀림이 할쓰기와 밀타기 등 문무를 겸비한 수련을 쌓았다. 세자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궁 안 동쪽에 거처를 마련하여 동궁(東宮)이라 했다. 그림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1817년 아홉 살의 나이로 성균관에 입학하는 의례를 기록한 화첩이다.

7 궐내각사

闕內各司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궐내 관청

관청은 대부분 궐 바깥에 있었지만,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위해 특별히 궁궐 안에 세운 관청들을 궐내각사라고 불렀다. 인정전 서쪽 지역에는 가운데로 흐르는 금천을 경계로 동편에 약방, 옥당(홍문관), 예문관이, 서편에 내각(규장각), 봉모당(奉模堂), 대유재(大酉齋), 소유재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근위 관청이며, 여러 부서가 밀집되어 미로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규장각, 대유재, 소유재는 단순한 도서관으로 기능이 변했다. 그나마도 소장 도서들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기면서 규장각과 봉모당 등 모든 전각들이 헐리고 도로와 잔디밭으로 변해 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들은 2000~2004년에 걸쳐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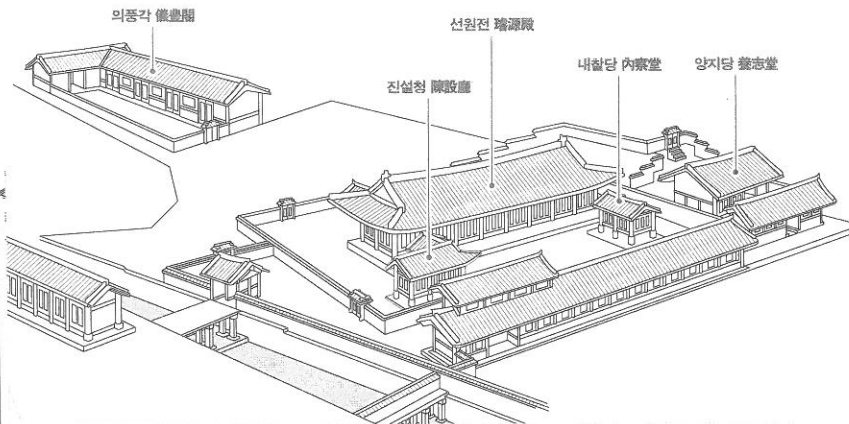
정조 개혁정치의 산실, 규장각 규장각(奎章閣)은 다른 이름으로 내각(內閣) 또는 이문원(摺文院)이라고도 했다. 정조 즉위 초에 역대 왕들의 시문과 글씨를 보관하는 왕실 자료실로 지었다. 처음에는 후원에 2층 누각으로 지었으나 너무 후미져서 불편하여 1781년(정조 5)에 이곳으로 옮겼다. 왕권확립, 개혁정치, 문예부흥을 표방한 정조가 특별한 의지와 관심을 쏟은 곳이기도 해서 궁중에서 가장 넓은 옛 도홍부 건물을 차지했다. 규장각의 실무자는 문예와 학식이 뛰어난 서얼 출신들을 주로 임명하여 관직의 길을 열어 주었다. 서얼 출신으로 박제가, 이덕무와 같은 뛰어난 실학자들이 여기서 배출되었다.

8 구 선원전 일원

舊 璿源殿

왕실의 제례를 거행하던 곳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다. 1656년(효종 7)에 경덕궁(慶德宮)의 경화당을 옮겨 지어 창덕궁 선원전으로 삼았으나, 1921년에 신 선원전을 후원 깊숙한 곳에 건립하여 어진을 옮겨 가면서 이 일대는 폐허가 되었다. 선원전은 지금까지 남아 있으나 부속건물들은 이때 없어졌다가 2005년에 복원되었다. 선원전은 36칸 규모이며, 앞면 좌우로 진설청(陳設廳)과 내찰당(內察堂)을 덧붙여서 제사 의례에 사용했다. 동쪽에 있는 양지당(養志堂)은 왕이 제사 전날 머무르던 어제실이다. 선원전 뒤편에 있는 의풍각(儀豐閣)은 제사용 그릇과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일제강점기에 신축한 것으로 전한다. 구 선원전은 보물 제8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실의 제례 유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육체와 혼백의 분리로 해석한다. 왕이나 왕비도 죽으면 육체는 시신이 되어 재궁(梓宮, 관)에 담기고, 하늘과 땅으로 흩어지는 혼백을 위해 신주(神主, 위패)가 만들어진다. 재궁은 빈전(殯殿)에 모셨다가 5개월 후에 산릉(山陵, 무덤)에 묻으며, 신주는 혼전(魂殿)에 모셨다가 삼년상을 지낸 후 종묘로 옮겨 모신다. 또한 죽은 왕을 모시기 위해 생전에 그려 둔 초상화인 어진을 선원전에 모신다. 산릉은 육신에 대해, 종묘는 혼백에 대해 각각 제사를 드리며, 선원전은 인격에 대해 제사를 드린다. 이 가운데 선원전은 왕기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궁궐 안에 만들었다.

9 낙선재 일원

樂善齋

헌종의 검소한 면모가 느껴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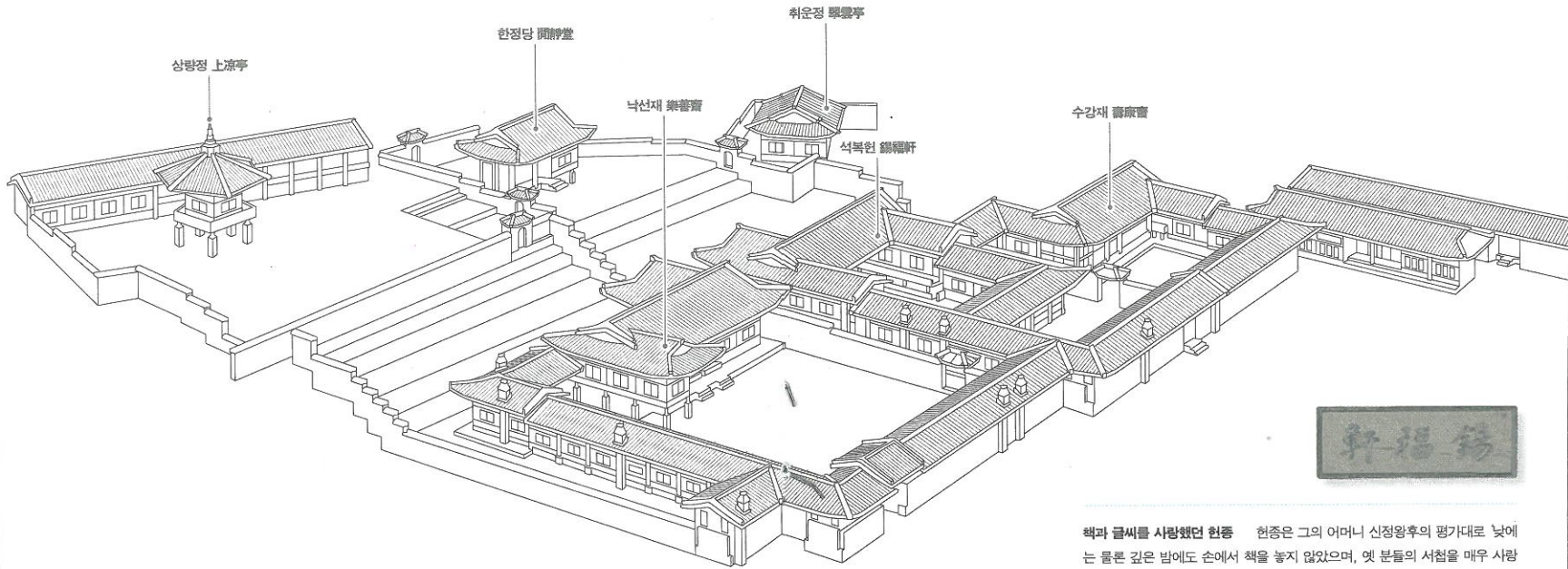
조선 24대 임금인 헌종은 김제청의 딸을 경빈(慶嬪)으로 맞이하여 1847년(헌종 13)에 낙선재를, 이듬해에 석복헌(錫福軒) 등을 지어 수강재(壽康齋)와 나란히 두었다. 낙선재는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고, 석복헌은 경빈의 처소였으며, 수강재는 당시 대왕대비인 순원왕후(23대 순조의 왕비)를 위한 집이었다. 후궁을 위해 궁궐 안에 건물을 새로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헌종은 평소 검소하면 서도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 면모가 느껴지는 낙선재는 단청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을 지녔으며, 석복헌에서는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가 1966년까지 거거하였고, 낙선재에서는 영왕의 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생활하였다. 이 영역은 2012년 보물 제 1764호로 지정되었다.





기품 있는 아름다움, 낙선재 후원 존경하는 할머니 대왕대비와 사랑하는 경빈을 위해 지은 집답게 세 채의 집 뒤에는 각각 후원이 달려 있다. 낙선재 뒤에는 육각형 정자인 평원루(平遠樓, 현재는 상량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가, 석복헌 뒤에는 한정당(閑靜堂)이, 수강재 뒤에는 취운정(翠雲亭)이 남아 있다. 특히 낙선재 후원은 서쪽 승화루 정원과 연결되는데, 그 사이 담장에 특이하게도 원형의 만월문(滿月門)을 만들었다. 건물과 후원 사이에는 작은 석축들을 계단식으로 쌓아 화초를 심었고, 그 사이사이에 세련된 굴퓌과 과석들을 배열했다. 궁궐의 품격과 여인의 공간 특유의 아기자기함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정원이다.

왕비의 대우를 받았던 후궁, 경빈 김씨 현종은 첫 번째 왕비 효현왕후 김씨가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이듬해 다시 왕비를 간택했는데, 전례 없이 본인이 직접 간택에 참여하였다. 이때 삼간택에 남은 세 사람 중 현종은 경빈 김씨를 마음에 두었으나, 결정권은 대왕대비에게 있었으므로 명현왕후 홍씨가 계비로 간택된다. 이로부터 3년 뒤 왕비가 있는데도 생산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새로 맞은 후궁이 바로 경빈 김씨이다.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후궁이 된 경빈은 현종의 지극한 사람으로 왕비와 다른없는 대접을 받았다. 석복헌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집이다.



책과 글씨를 사랑했던 현종 현종은 그의 어머니 신정왕후의 평가대로 '낮에는 물론 깊은 밤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옛 분들의 서첩을 매우 사랑했다.' 낙선재에는 온갖 진귀한 서적들이 가득하였다. 현종의 소장 도서목록인 <승화루서목>에는 4,555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서화가 918점이나 되었다. 서화에 대한 그의 지극한 관심을 말해 주듯 낙선재 현판은 청나라 금석학자 섬지선(葉志諄)의 글씨이고, 평원루 현판은 옹수곤(翁樹崑)의 글씨이다. 이들은 모두 추사 김정희와 친교가 있었던 청나라 대가들이다.

창덕궁 후원

昌德宮 後苑

자연 지형을 살려 만든 왕실의 휴식처

태종이 창덕궁을 창건 할 당시 조성한 후원은 성종 대에 건립된 창경궁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들 궁궐이 다른 궁궐보다 특히 왕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넓고 아름다운 후원 때문일 것이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고 후원이 훼손되어 광해군이 창덕궁과 함께 1610년(광해 2)에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조, 숙종, 정조, 순조 등 여러 왕들이 개수하고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정자를 만들었다. 약간의 인위적인 손질을 더해 자연을 더 아름답게 완성한 절묘한 솜씨이다. 4개의 골짜기에는 각각 부용지(芙蓉池), 애련지(愛蓮池), 관람지(觀濺池), 옥류천(玉流川) 영역이 펼쳐진다.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개방된 곳에서 작고 깊은 곳으로, 인공적인 곳에서 자연적인 곳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뒷산 옹봉으로 이어진다. 서쪽 깊숙한 숲 속에 대보단이나 신 선원전 같은 제사 시설이 있는 신성한 곳이다. 세계 대부분의 궁궐 정원은 보고 즐기기를 위한 관람용이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대한 경관이 펼쳐진다. 이에 비해 창덕궁 후원은 작은 연못과 정자를 찾아 여러 능선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은밀하게 체험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비밀인가, 후원인가? 창덕궁 후원에는 특별히 붙여진 고유한 이름이 없다. 한국의 전통 정원은 건물의 앞을 비워 두고 뒤편에 만들었다. 창덕궁도 그 예를 따라 궁궐 뒤편에 정원을 만들고 '후원(後苑)'이라 불렀다. 궁궐 안에 있다 하여 '내원(內苑)',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서 '금원(禁苑)'이라 부르기도 했다. 구한말에 궁 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후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비원(秘院)을 두었는데, 1904년부터 비원(秘苑)이라는 명칭이 기록에 등장한다. 비원이란 명칭이 일반인에게 익숙해진 것은 금원이었던 이곳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부터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창덕궁 후원이 비원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때문이다.

쓰임새가 다양했던 후원 후원은 왕가의 휴식과 산책을 위한 곳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자연 풍광을 느끼면서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는 것은 물론이요, 과거시험을 비롯한 갖가지 야외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조선 초기에는 왕이 참관하는 군사훈련이 자주 실시되었고 활쏘기 행사도 열렸다. 연못에서 낚시를 하거나 배를 띄우기도 하고 꽃구경을 하였으며,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도 하였다. 대비를 모시는 잔치, 종친이나 신하를 위로하는 잔치 등 임금이 주관하는 잔치도 자주 열렸다. 또한 왕은 이곳에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왕비는 양잠을 직접 시행하는 친잠(親蠶)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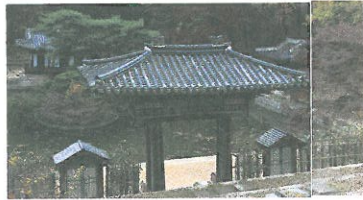
10 부용지와 주합루

芙蓉池 · 宙舍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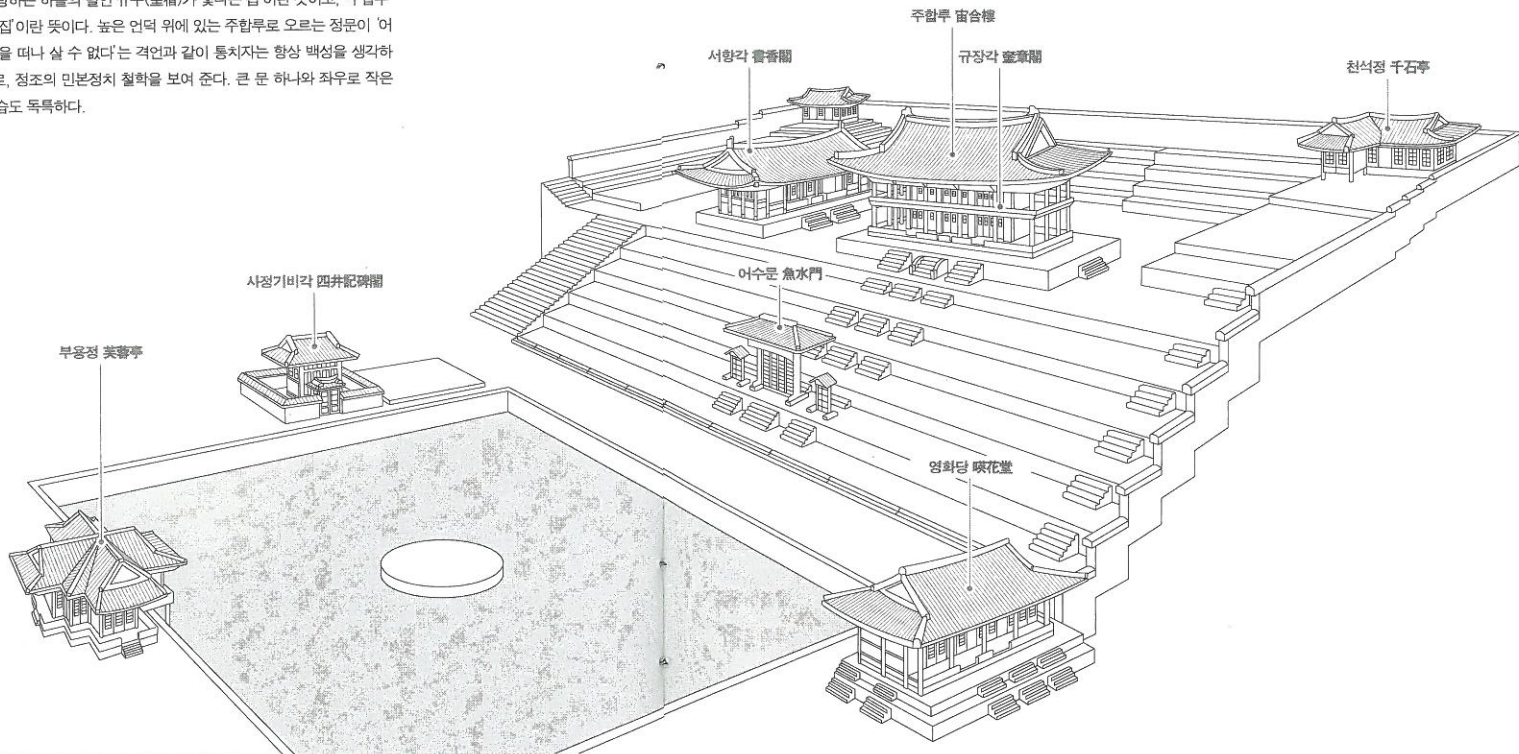
휴식과 학문적 용도로 쓰인 아름다운 건물들

이곳은 후원의 첫 번째 중심 정원으로, 휴식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소였다. 300평(약 1000㎡) 넓이의 사각형 연못인 부용지를 중심으로 여러 건물을 지었다. 주합루 일원의 규장각(奎章閣)과 서향각(書香閣) 등은 왕실 도서관 용도로 쓰였고, 영화당(映花堂)에서는 왕이 입회하는 특별한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영화당은 동쪽으로 춘당대 마당을, 서쪽으로 부용지를 마주하며 앞뒤에 뒷마루를 둔 특이한 건물이다. 연꽃이 활짝 핀 모양의 부용정은 연못에 띄어 있는 한송이 꽃의 형상으로 2012년 보물 제 1763호로 지정되었다. 행사가 치러지던 영화당은 연못에 면해 있으며, 학문을 연마하던 주합루는 높은 곳에서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나하나의 건물도 각각 특색 있고 아름답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풍경이 되는 절묘한 경관이다. 현재는 어수문을 중심으로 생울타리인 취병을 재현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주합루와 어수문(宙舍樓, 魚水門) 주합루는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창건한 2층 누각이다. 아래층에는 왕실 직속 도서관인 규장각을, 위층에는 열람실 겸 누마루를 만들었다. '규장각'이란 '문장을 담당하는 하늘의 별인 규수(奎宿)가 빛나는 집'이란 뜻이고, '주합루'란 '천지 우주와 통하는 집'이란 뜻이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주합루로 오르는 정문이 '어수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격언과 같이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생각하라는 교훈이 담긴 문으로, 정조의 민본정치 철학을 보여 준다. 큰 문 하나와 좌우로 작은 문 두 개로 나누어진 모습도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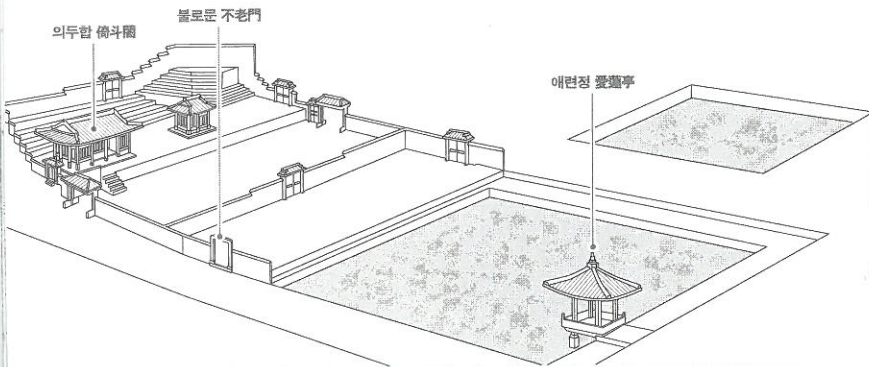
활쏘기에 능했던 조선의 왕들 조선의 왕들은 우리 민족의 주요 무술인 활쏘기를 사랑하여 후원에서 활쏘기를 즐겼다. 태조 이성계는 신궁이라 할 정도로 활쏘기에 능했고, 세조도 활쏘기가 뛰어나 '태조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영조는 철수가 넘은 나이에도 정곡을 명중시키는 기량을 보였다. 문예뿐 아니라 무술에도 능했던 정조 또한 활솜씨가 대단했다. 50발 중 49발을 명중시킨 후 '무엇이든 가득 차면 못 쓰는 것이다'라고 하며 나머지 한 발을 일부러 빗나치게 쏘았다는 놀라운 입화가 <정조실록>에 남아 있다.

11 애련지와 의두합

愛蓮池 · 倚斗閣

군자의 성품을 닮은 경치

1692년(숙종 18)에 연못 가운데 섬을 쌓고 정자를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섬은 없고 정자는 연못 북쪽 끝에 걸쳐 있다. 연꽃을 특히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愛蓮)'이라는 이름을 붙여, 연못은 애련지가 되었다. 숙종은 '내 연꽃을 사랑함은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맑고 깨끗하여 은연히 군자의 덕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새 정자의 이름을 지은 까닭을 밝혀 놓았다. 애련지 서쪽 연경당 사이에 또 하나의 연못이 있는데, 원래 이곳에 어수당이라는 건물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1827년(순조 27) 효명세자는 애련지 남쪽에 의두합을 비롯한 몇 개의 건물을 짓고 담장을 쌓았다. 현재 '기오헌(奇傲軒)'이라는 현판이 붙은 의두합은 8칸의 단출한 서제로, 단청도 없는 매우 소박한 건물이다. 바로 옆의 운경거(韻馨居)로 추정되는 건물은 궐 안에서 가장 작은 한 칸 반짜리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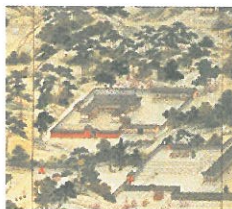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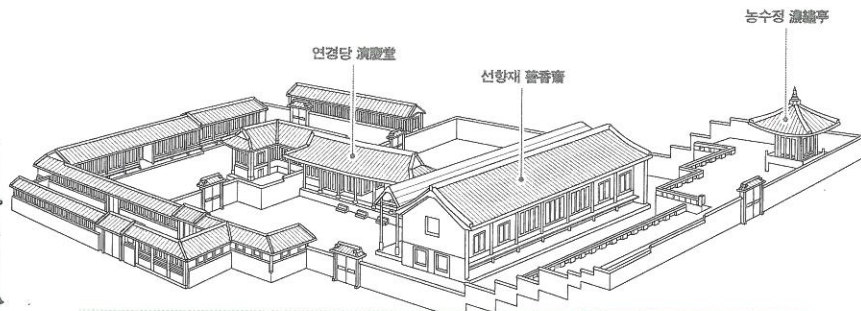
인조반정과 어수당 지금은 사라진 어수당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1623년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의 비 유씨는 반정의 깃새를 알아차리고 공녀들과 함께 밤에 몰래 어수당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이들이 지나도록 밖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유씨는 보향이라는 공녀를 시켜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렸다. 보향이 반군 대장에게 '이 일이 의거라고 하면서 아찌 전왕의 비를 끊겨 죽이려 하오?'라고 하자, 대장이 이를 인조에게 보고하여 유씨에게 음식을 후하게 차려 주었다고 한다.

12 연경당

演慶堂

사대부 살림집을 본뜬 조선 후기 접견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1828년(순조 28)경에 창건했다. 지금의 연경당은 고종이 1865년쯤에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사대부 살림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하지 않았다.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부는 연결되어 있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 민가가 99칸으로 규모가 제한된 데 비해, 연경당은 120여 칸이어서 차이가 난다. 서재인 선향재(善香齋)는 창나라풍 벽돌을 사용하였고 동판을 씌운 지붕에 도르래식 차양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후원 높은 곳에 있는 농수정(濃繡亭)은 마치 매가 날개를 편 것같이 날렵한 모습이다. 안채 뒤편에는 음식을 준비하던 반딧간이 있다. 고종 이후 연경당은 외국 공사들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창건 당시 연경당의 모습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의 40세를 기념하여 이곳에서 진작례(進爵禮)를 열었다. 진작례란 왕과 왕비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며 가무를 공연하던 행사를 말하며, 효명세자는 이를 왕권강화책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창건 당시 연경당은 'ㄷ'자형 건물 한 채로 남쪽 앞이 터지고, 동쪽에 긴 'ㄴ'자형 부속건물 두 채가 붙어 있는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창건 당시의 연경당을 연회 공간으로 해석하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안마당이 무대가 되고 이를 감싼 'ㄷ'자 건물을 객석으로, 동쪽 부속체는 출연 대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3 존덕정 일원

尊德亭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

이 일대는 후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모습은 네모나거나 둥근 3개의 작은 연못들이 있었는데, 1900년대 이후 하나의 곡선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관람정이라고 부른다. 연못을 중심으로 겹지붕의 육각형 정자인 존덕정, 부채꼴 형태의 관람정(觀覽亭), 서쪽 언덕 위에 위치한 길쭉한 맞배지붕의 편우사(庇愚榭), 관람정 맞은편의 승재정(勝在亭) 등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을 세웠다. 편우사는 원래 부속채가 딸린 'ㄱ'자 모양이었으나 지금은 부속채가 없어져 단출한 모습이고, 숲 속에 자리 잡은 승재정은 사모지붕의 날렵한 모습이다. 1644년(인조 22)에 세워진 존덕정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관람정과 승재정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세운 것으로 추정한다.



존덕정 1644년(인조 22)에 지어진 이 건물은 처음에는 육면정이라고 부르다가 존덕정으로 바뀌었다. 이 건물과 이어진 다리 남쪽에 시간을 재는 일영대(日影臺)가 있었다고 한다. 존덕정은 본 건물을 짓고 그 처마에 잇대어 지붕을 따로 만들어 지붕이 두 개이다. 바깥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하나를 세울 자리에 가는 기둥 세 개를 세워 이채롭다. 존덕정 천장 중앙에 그려진 쌍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림은 왕권의 지엄함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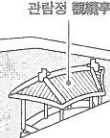
승재정 勝在亭

편우사 庇愚榭

존덕정 尊德亭



관람정 觀覽亭



정조가 탄 어마(御馬)
왕의 모습은 일부러 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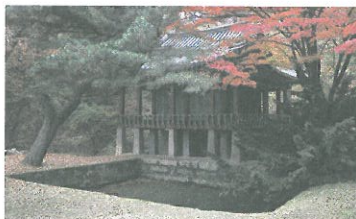
정조의 자신감, '만천명월주인옹자서' 존덕정 안 북쪽 지붕 아래에는 '萬川明月主人翁自序'라 쓰인 나무판이 걸려 있다. 정조가 재위 22년(1798년)에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세상의 모든 시냇물이 품고 있는 맑은 달의 주인공)'이라는 호(號)를 스스로 지어 부르고, 그 서문을 새겨 존덕정에 걸어 놓은 것이다. 그 요지는 '못 개울들이 달을 받아 빛나지만 달은 오직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 달이요 너희들은 개울이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태극, 음양, 오행의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것으로 신하들에게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평생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준엄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15 신 선원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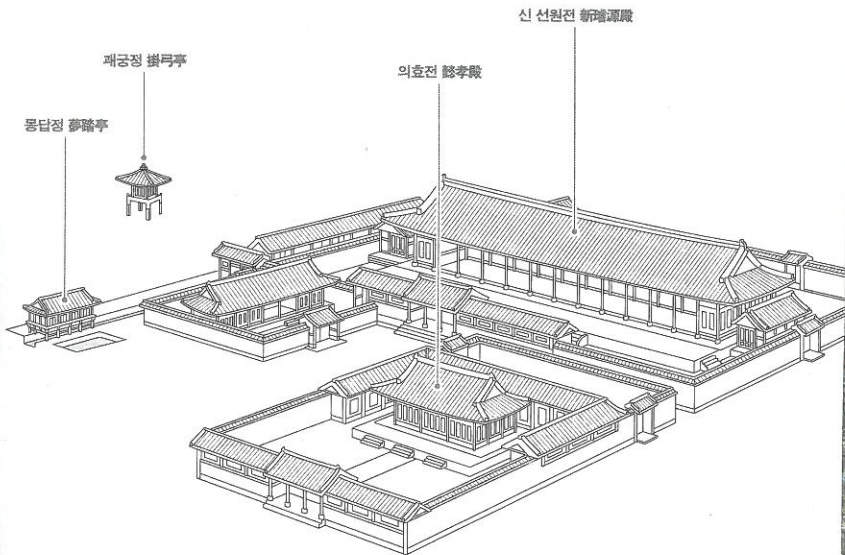
新璿源殿

역대 임금의 어진을 모셨던 곳

이곳에는 원래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 준 명나라 신종(神宗)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설치한 대보단(大報壇)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대보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원전을 지어 구 선원전에 모셨던 어진들을 옮겨 왔다. 이처럼 후원 깊숙한 곳으로 선원전을 이전한 까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조선 왕실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속건물인 의효전(懿孝殿)은 원래 경복궁의 문경전을 덕수궁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12명의 어진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실수로 불타 없어졌다.



신 선원전 안의 정자들 현재 신 선원전 안에는 두 개의 정자가 있다. 이들은 원래 후원 바깥 영역에 속했다. 후원 북서쪽 경계에 훈련원 군영이던 북영(北營)이 있었는데, 1759년 훈련대장 김성응이 군영의 누각으로 몽담정(夢澗亭)을 지었다. 군사용 정자답게 규모가 크고 당당하다. 북쪽 언덕에 있는 개궁정(掛弓亭)은 군영 안의 활터를 내려다보던 정자이다. '개궁'이 '활을 걸다'라는 뜻이니, 그 이름처럼 활쏘기를 감상하던 정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개궁정 바로 뒤편에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중앙고등학교가 있다.



활쏘기를 못 해 북영에 감금당했던 정약용 정조는 규장각의 여러 신하들에게도 활쏘기를 시켜 문무를 겸비한 재목으로 키우려 했다. 정약용이 규장각에 근무하던 1791년(정조 15) 북영에서 활쏘기를 하는데 영 실패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활을 제대로 못 쏘면 벌주를 받았지만, 정조는 이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라며 북영에 정약용을 잡아 놓고 5발을 쏠 때마다 1발씩 맞혀야 풀어 주겠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활을 믿기뜨리고 손이 부르르고 말 타는 법이 서툴러 보는 사람들이 크게 웃을 정도였으나, 며칠 지나자 능숙해지고 열흘이 지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관람정보

110-36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 cdg.go.kr / 02-762-9513

궁궐 내 전각 자유 관람	안내시간	한국어 09:30, 11:30, 13:30, 15:30, 16:30		
	(약 1시간)	영어 10:30, 14:30		
		일본어 12:30 / 중국어 16:00		
	관람요금	대인(19세이상) 3,000원 / 단체 10인 이상(20%) 무료: 청소년, 경로(65세이상)		
	계절별 매표	4월~10월 09:00~17:30	계절별	09:00~18:30
	및 입장시간	11월, 3월 09:00~16:30	관람시간	09:00~17:30
		12월~2월 09:00~16:00		09:00~17:00

- 매주 월요일은 휴궁
- 마지막 입장시간은 일몰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궐 내 후원 특별 시간제 관람	안내시간	한국어 10:00, 11:00, 12:00, 13:00, 14:00, 14:30, 15:00, 16:00, 16:30		
	(약 90분)	영어 11:30, 15:30		
		일본어 10:30, 13:30, 16:15 (1시간 소요)		
		중국어 12:30		
	관람요금	대인 5,000원 / 소인 2,500원 무료: 만6세이하 어린이, 장애인 및 보호자(1급~3급, 증빙카드제시) 국가유공자 및 그 보호자 (1급, 증빙카드제시)		
	계절별 매표	4월~10월 09:00~16:30	계절별	09:00~15:30
	및 입장시간	11월, 3월 09:00~15:30	관람시간	09:00~17:30
		12월~2월 09:00~15:30		09:00~17:00

- 후원특별관람: 제한관람, 일반관람권과 후원관람권을 모두 발권(8,000원)
- 외국어 안내 시간에는 동반자를 제외한 내국인 입장 불가
- 별도 관람권 구매 시 함양문을 통해 창경궁과 연계관람 가능

수화해설시간 ● 10:00, 14:00 (2회/1일, 1시간 30분, 인터넷예약 필수)

교통안내	지하철	종로3가역(1, 3, 5호선) 6번 출구로 도보 10분
		안국역 (3호선) 3번 출구 도보5분
	버스	간선(파랑) 109, 151, 162, 171, 172, 272 / 지선(초록) 7025
		● 자세한 버스 노선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bus.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람 문화재청은 4대궁 및 종묘를 대상으로,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합관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람 대상: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
 통합관람 요금: 10,000원(각각의 관람권 개별 구입 시 14,000원)
 통합관람권 구입처: 4대궁 및 종묘의 매표소
 유효기간: 구입일로부터 1개월